

# 포기하지 않는 열정 ... 한국 축구, 희망을 봤다

파울루 벤투 감독(53)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도전은 5일(미 서부시간 기준)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브라질과 16강전에서 1-4 패배로 마감됐다. 비록 하지만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한국 축구대표팀에게는 박수와 격려가 이어졌다. 세계 강호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며 16강 진출의 결과를 냈고, 미래의 희망도 봤기 때문이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전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인 강력한 우승후보 브라질을 맞아 고전했다. 조별리그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치며 주전들의 체력 저하가 눈에 띄었다. 몸놀림이 무거운 한국 선수들은 선수 하나 하나가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브라질 선수들을 상대로 전반에만 4골을 허용했다.

그래도 태극전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안와골절로 보호구를 착용하고 대회에 나선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은 공중볼을 향해 몸을 던졌고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녔다. 그 결과 후반 20분에 교체 투입된 백승호(25·전북)가 짜릿한 중거리슛으로 만회골을 터뜨렸다.

한국은 브라질 벽에 막혔지만 이번 대회에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이자 통산 3번째 16강 진출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벤투 감독이 2018년 8월 부임한 이래 4년간 갈고 닦은 '빌드업 축구'가

확실히 뿌리 내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는 이 축구는 아시아가 아닌 세계 무대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혹평에 시달렸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달랐다. 남미와 유럽 강호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았다.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0-0으로 비기더니 H조 최강 포르투갈을 맞아 2-1 역전승을 거두며 극적으로 16강 티켓을 따냈다. 브라질과 맞대결에서도 수비에 힘을 쏟았다면 실점을 더 줄일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빌드업 축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벤투호는 강팀과 맞붙어 주눅 들지 않았고, 패스로 만들어가는 축구에 대한 자신감을 세계 무대에 보였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샛별들도 발굴됐다. 한국 최초의 월드컵 멀티골을 터뜨린 골잡이 조규성(24·전북)과 교체로 출전할 때마다 경기 흐름을 바꾼 미드필더 이강인(21·마요르카), 그리고 브라질을 맞아 데뷔전 데뷔골로 한국의 자존심을 지킨 백승호가 대표적이다. 조규성은 "유럽과 남미 선수들과 부딪쳐보니 (유럽에 도전해)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고 말했다.

한국 축구는 당초 목표였던 16강을 달성했지만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벤투 감독이 이 경기를 끝으로 계약이 종료돼 이별을 고한 터라



▲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 손흥민. 사진=khan.co.kr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첫 걸음이다. 새 감독과 함께 이번 대회에서 갈고 닦은 축구를 업그레이드한다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선 더 높은 곳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 응원단 '붉은 악마'가 가장 뜨거운 응원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2일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40경기를 결산하며 경기별 관중석의 응원 소리를 측정해 결과 한국과 우루과이의 H조 조별리그 1차전이 131데시벨로 1위였다. 피파는 "한국-우루과이전의 응원 열기는 대단했다."며 "이는 북 콘서트장의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가나의 H조 조별리그 2차전도 122데시벨로 4위에 올랐다. 2위는 튀니지-호주전(124데시벨), 공동 3위는 웨일스-잉글랜드전, 튀니지-프랑스전(123데시벨)이 각각 차지했다. 다만 이 순위에는 조별리그 최종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2-1로 역전승하며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H조 조별리그 최종전의 결과가 나오면 순위는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 응원단은 가장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사진=연합뉴스

타운뉴스

www.townnewsusa.com

## 행복한 소식 가득 전합니다.

좋은 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는 1994년 창간 이래  
남가주 지역 한인과 함께  
호흡해 온 신문입니다.

타운뉴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T.562.404.0027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